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

목적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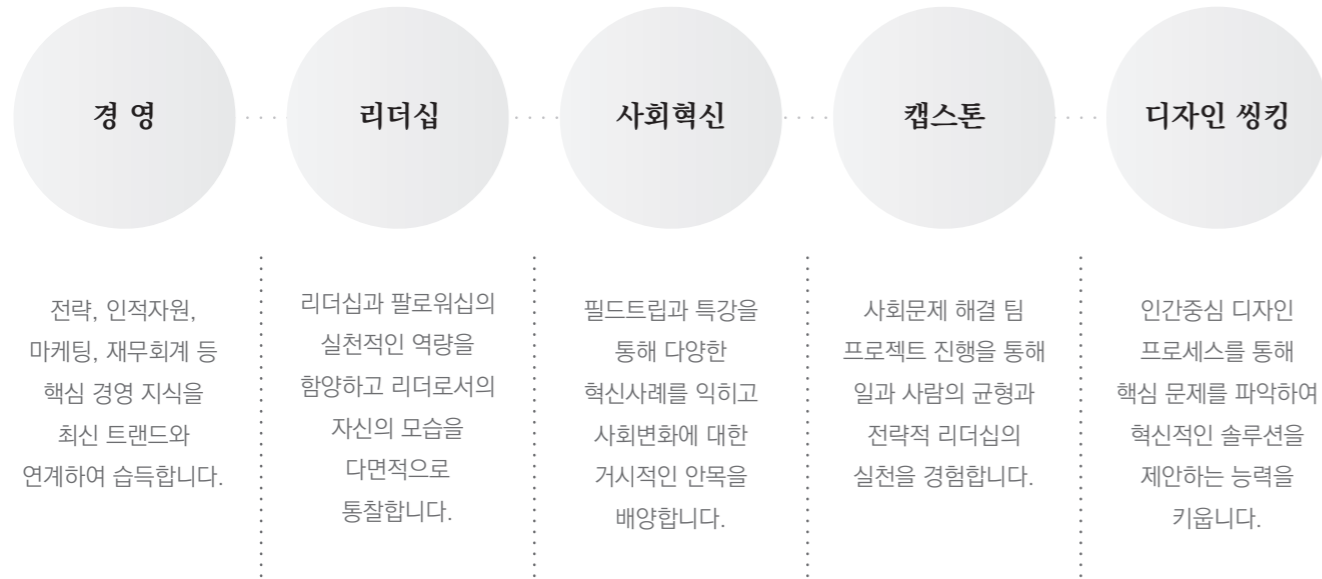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안내

7개월 간 진행되는 교육은 국내 영역별 최고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토론, 케이스스터디, 혁신기관 필드트립,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포함한 다면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방향

담임 교수제

모듈별 담당 교수가 직접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지도합니다.

현장 지향 수업 및 사례 기반 학습

조직 현장에 기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국내외 단체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돕습니다.

토론 중심 학습

교육 내용과 관련된 참가자의 경험과 의견 및 소속단체의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강의 이해도와 수강생의 참여도를 증진 시킵니다.

문제 해결 중심 과정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습득하여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카데미 자체 커리큘럼 개발 및 공유

자체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비영리 분야 지식 창출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

영역별 전문가 특강, 단기해외연수 등 아카데미 동문을 위한 Alumni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리더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7기 발자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1·2차 캡스톤 발표



수료식

해외방문연구조사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 수기



지금 이 아니라면 언제?

...

고수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이 드디어 내려간다. 어느 순간 하나 아쉬운 것이 없었던 꼭 찬 시간이었다. 아니, 꼭 찼다고 하기에 도 늘 상상보다 넘쳤던 시간이었다. 아카데미 소개자료에서 예상했던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뛰어 넘는 특별한 경험들이 참 많았다. 무엇보다도 입학식 때 동기생 중 두 번째 최고령자임을 알고 살짝 당황했지만, 나와 동갑이 네 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역대 기수 중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로 뽑혔다는 내부 평가를 들으면서도 내가 역세게 운이 좋다는 생각도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은 없지.'라는 마음과 함께.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개인의 성장과 조직을 위한 기여 가운데에서 참 많이 고민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성장이 없고, 조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다. 중간관리자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로서의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내가 속한 기아대책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고민은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교수님들의 강의와 코칭을 받으면서 조금씩 해소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와 함께 나 자신이 아카데미의 비전처럼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로서 육성되었다고 당장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어야 하는지 방향은 잡아볼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의 팀원들과도 나누고, 같은 리더십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전달하고, 나만 듣고 배우고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내용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여러 사람에게 내년 아카데미 지원과정을 전도하고 다녔다. 물론 지났던 아카데미 과정이 늘 행복하고 신났던 것은 아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반기 나의 모든 출장 일정을 티 안 나게 조정하고, 미팅 및 행사일정도 아카데미 일정에 맞추고, 새벽마다 일어나 과제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왜 사서 고생이지!'라고 외치며 지나온 시간도 참 많았다. 역시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가 보다. 그새 이 힘듦도 잊힌 것 같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된 나 자신이 참 자랑스럽다. 캡스톤만 빼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농담하던 우리 AFA 7기, 캡스톤 발표 때마다 주제가 바뀌어서 당황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던 우리 '함께가조'의 팀원들. 앞으로 자주 못 볼 생각을 하니 벌써 그립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참 많아졌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보석 같은 인연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들로 인해 일과 삶이 풍성해지고 성숙해져서 참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풍성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고, 지금 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이렇게 내 인생의 2018년 한 페이지가 빠르게 채워져 참 행복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

김주영
태화복지재단



2018년 2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번에 한 번 해봐.”라는 지인의 추천. 정확히 말하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기를 수료하신 상사의 권유이자 지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지만, 쉽게 오지 않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에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던 그 때. 그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료의 시간이 다가왔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지원 동기는 명확했다.

어느 순간 ‘채움’, ‘적용’보다는 ‘고갈’,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고, 주변에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고, 성장의 발판이자 삶의 전환점을 갖고 싶은 생각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난 7개월 간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참여 결과, 지원 동기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완벽함’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현재도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전보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직 경영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느낀다. 이는 조직 내 상사,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조직 내 책임과 역할이 가볍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하다.

이제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우고 채운 것을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이다. 2019년이 벌써 기대된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양질의 교육을 다닐 수 있게 배려해준 태화복지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기휘 사무총장 직무대리님, 최수진 국장 직무대리님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준 사회복지연구소 윤혜인 선생님과 모금홍보과 석구연 대리, 김광현 선생님, 고마워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만난 귀한 분들, 3조 ‘Something Stupid’, 이정미 원장님, 김진아 사무국장님, 정지혜 팀장님, 임상엽 실장님, 홍도는 과장님. 부족한 저와 함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배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기간 내내 함께 고생한 7기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련해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드리며, 항상 교육생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신 박지훈 팀장님, 백민경 매니저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간 내내 지지와 격려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감사드리며, 매일 늦은 밤까지 쌍둥이와 함께하느라 고생 많으신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배려해주는 나의 사랑 장지윤, 감사해요. 나의 사랑스러운 딸쌍둥이, 로희, 로아도 고마워요.

먼길을 돌아 다시 '나'부터 시작한다

• • •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급변하는 상황에서 때로 저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로 가려진 길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지원서에 적었던 나의 '지원동기'다. 그랬다. 때론 고통스럽고 외로웠으며, 혼란스러웠고, 힘겨웠다. 단지 조직의 상황 때문은 아니었다. '가치'와 '열정', '진심'만으로 해결하기에 조직의 문제는 복잡했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실패와 좌절도 컸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그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났다.

세 마리 토끼, 그것은 가능한가

수업을 위해 업무시간을 줄여야 했고 과제를 위해 밤을 새워야 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말에 단 한 번도 쉴 수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 때문이었다. 물리적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수업이기에 업무에서 결손이 없도록 야근을 하거나 아침저녁 물입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중요한 회의 일정을 미루면서 아카데미에 올 때는 나의 조직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힘겨움이 뒤범벅되어 눈물이 핑 도는 순간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어려웠다. 남편이 해외에 있어 아이를 홀로 돌봐야 했는데, 한 번 밖에 없는 학습의 시간이라고 칠순이 다된 친정 부모님들이 나서주셨다. 하지만 때로 아이에게 홀로 냉동 밥을 데워 먹게 할 때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업무, 학업, 양육의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돌봄이었다.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지혜로운 비율

세 마리 토끼를 쫓는 힘겨움에서도 버틸 수 있던 또 다른 원동력은 '수업'이었다. 전략 모듈을 통해 지도를 보고 그리는 법을 배웠고, 리더십 모듈을 통해 겨루기 위한 품새를 익혔다. 인적자원관리 모듈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웠고, 재무회계 모듈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원리를, 또 디자인 씽킹 모듈을 통해 새로운 소통에 대한 도전을 배웠다. 마케팅 모듈에서는 경쾌하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사회혁신 모듈을 통해서는 전환과 혁신을 통한 용기를 익혔다. 그 시간들이 이토록 알찬 시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캡스톤 모듈이다. 수업 시간마다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수많은 질문에서 나와 우리를 잃어내고 나아가 조직까지 들여다보는 단계적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캡스톤 모듈을 거치며 수업이 던져진 질문들 앞에서 나는 제대로 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것은 그 수백, 수천 개의 질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오로지 '나' 자신을 직면하고 바뀌어나갈 때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온 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멀고 힘든 수백 킬로미터의 고행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는지 말이다. 물론 나는 한 번쯤 가 볼 만한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배움을 당신도 얻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길을 걷는다. 이곳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7개월의 대장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이 먼 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신발을 단단히 묶으세요. 반드시 ‘완주’하고 싶다면, 짐을 가볍게 하시길. 만약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머리와 가슴의 온도를 적절하게 끌어 올려 주신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정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신 아산나눔재단 운영진, 애정과 따스함으로 함께 한 7기, 그리고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어버린 우리 3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 7개월 동안 아카데미에 집중하도록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엄마 없는 시간을 잘 견뎌준 열 살배기 나의 사랑 지섭이, 이런 귀한 성장의 시간을 과감히 투자해준 아름다운재단에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한다. “모든 분께, 참 고맙습니다.”



Low & High

• • •

김 태 정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Low'와 'High', 모두를 경험하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다.

첫 번째 Low & High

2018년 2월 8일 오전 6시 53분 핸드폰이 울렸다. 지인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모집 공고 링크를 보내주셨다. 바로 그날 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와 2차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마지막 면접 심사는 첫 직장 입사면접 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하필 그날따라 대답도 황설수설 하고, 같이 면접 보신 분들은 말씀도 잘하셔서 나는 기가 팍 죽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날 무렵 김상범 대표님의 말씀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우열을 가기리 힘들 정도로 다들 우수하십니다. 하지만 연령과 성비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관계로 불합격하시더라도 결코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나는 운 좋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가 되었다.

두 번째 Low & High

입학식을 시작으로 2박 3일 간의 오리엔테이션과 7개월간의 교육과정은 내게 신세계였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된 방식과 수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왔던 나에게 전략 수업을 듣는 건 좋았지만, 직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너무 어려웠다. 리더십 수업에서 심금을 울리며 내가 되어야 할 리더상을 각인시켜 주었고, 마케팅은 닫혀 있던 생각을 열어 주었으며, 재무회계는 숫자에 약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고, 사회혁신은 나부터 혁신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디자인 씽킹은 프로토타입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고, 캡스톤은 매주 일요일 자정을 두렵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7개월 간의 긴 시간이 어느덧 훑 지나갔다.

세 번째 Low & High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업무를 병행하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의 교육을 참석하는 것은 즐겁지만, 한편으로 많이 힘들었다. 업무량은 줄지 않고, 매주 일요일 자정의 압박은 큰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멋진 7기 동기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캡스톤 4조 로하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팀을 만났다. 참 감사하다.

앞으로 Low & High

수료 이후에도 내 앞길에 'Low'와 'High'가 공존할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혁신 마지막 수업 때 이재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를 타고 즐길 줄 아는 'Low & High'의 삶을 살고 싶다.



쉽과 도전을 주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김 태 현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



시작할 때는 지인의 추천으로 교육에 참여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7기 동기들과 교수님, 스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지나 갑니다. 비영리조직의 차세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참 많은 도전과 쉽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최고의 교수님들과 사람의 소중함과 배려가 담겨있는 스텝들의 헌신, 진심을 담아 격려하는 동기들의 훈훈함이 최고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영교육을 통해 준비된 리더가 혁신하는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배웠 습니다. 특히 리더가 조직 안에서 원하지 않은 상황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전략적으로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캡스톤 모듈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연히 자기 일을 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약기처럼 다루어 조직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혁신조직들의 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글로벌 인재의 역량은 커뮤니케이션과 IT 활용능력, 실행력이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굿임팩트의 사명은 사회적경제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리더로서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적경제 기관들의 연계, 각 생태계의 결합의 이슈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창업한지 2년된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단계의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던 중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새롭게 조직이 출발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것들 버리기

...

민혜경
서울YWCA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들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익숙하게 사용한 것들에 대해 부담감이 없다. 그 익숙한 것들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장소이든지 그것을 편하게 사용하고 만족해한다. 조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 역시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점차 불편하고 낯선 것들을 만나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다. 사람들도, 새로운 일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익숙해져버린 업무 방식, 조직에서의 활동,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략, 마케팅, 인적관리, 재무회계, 리더십, 디자인씽킹, 사회혁신 그리고 캡스톤까지 비영리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알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나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조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2번, 그것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사람과 지식이 앞으로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 트랙 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운동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내 몸을 잘 알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약기처럼 되었을까? 아직은 물음표로 남아있다. 그러나 전보다는 좀더 전체를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는 끝났지만, 나는 아직도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커 J.파머는 '내면의 삶은 내 존재의 바탕을 되찾아 나라고 생각하던 나보다 더 크고 진실된 존재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며 삶 전체를 내 존재의 바탕에 조용히 비추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내 삶에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나를 돌아켜보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끝으로 함께한 7기 동기들과 교수님들,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

박미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망치’를 들다

어스름 동이 터오는 새벽, 차가운 공기에 정신을 차리며 집을 나서고 밤 11시에 허겁지겁 들어와 쓰러지기를 7개월. 주말이면 숙제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킁킁대고 프로젝트 한다고 나가고, 센터 일도 집안일도 엉망인 것 같고, 모두에게 미안하고...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몸과 마음 모두 쉽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했다. 아니, 이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되새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변화와 배움’. 7개월 전 아카데미를 지원하며 내가 가졌던 목표이고 이유였다. 리더십 첫 시간에 방대옥 교수님께서 ‘망치’를 들라 하셨다. 변화와 배움을 위해 먼저 필요한 건 나를 깨는 ‘망치’였다. 깨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동시에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회피하지 않고 나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20년 이상 굳어져 온 나의 고정관념과 습관들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경계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차리고 넘어서는 도전, 이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배움의 시간이었다.

내면의 힘

비영리와 영리, 전략과 가치, 일과 사람, 리더십과 팔로십, 현재와 미래, 나와 조직, 실력과 열정 등... 수많은 화두들이 들어왔고 아직도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전보다는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찾는 데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일도 배움도 담은 사람

완벽에 가까운 정성과 꼼꼼한 기획을 보여주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 운영과정은 그 자체가 큰 배움이고 감동이었다. 처음 접해보는 캡스톤 수업은 신선하면서도 가장 깊은 인사이트를 주었다.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들을 머리로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전략적 리더십. 목표를 향해 함께 만들어가는 팀원들과의 행복한 실행의 과정들. 잊지 못할 11일 간의 유럽에서의 추억들. 나와 같은 듯, 다른 듯한 동료들은 모두 나에게 스승이 되었다.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실력과 열정을 가진 따뜻한 동료들이 참으로 고맙다. 일도 배움도 결국 담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는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배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울리고 실천되어야만 배움이라 할 수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끝났지만, 일터와 삶터에서 끝나지 않은 나의 변화와 배움의 속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며

...

박성종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이패드 노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에는 총 57개의 글이 있다. 첫 만남 워크숍에서부터 필기해오던 것이 어느새 57개가 되었다. 아산나눔재단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매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던 교수님들의 수업 노트, 그리고 이 수료 수기를 포함해서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기록과 그 감동을 마지막 후기에 남기고 싶다.

“전략이란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독특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 김태영 교수님

“The essence of strategy is choosing what not to do.” - 마이클 포터

“전략가는 조직과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그리고 협업에 강하다. 적어도 리더라면 이 정도까지 가면 좋겠다.” - 방대욱 대표님

“목표가 없으면 달성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면 목표가 아니다. 정의를 잘하면 측정이 가능해진다.” - 이봉주 교수님

“문제를 정의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철저히 구분된다. 어떤 것이 진정한 문제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디자인씽킹의 진짜 매력이다.”
- 최송일 대표님

“비영리 조직이 대체로 인본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영리 조직 내의 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 문형구 교수님

“직원들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회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십시오.”
- 양혁승 교수님

“마케팅은 교환과정이다.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 나누는 것이 마케팅이다.” - 현용진 교수님

“엡프라멘스(Infra-mince), 지각 불가능한 미세한 차이가 변화를 만든다.” - 최재봉 교수님

“메타스킬, 개념설계, 신뢰와 연결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즐겨라.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라.” - 이재열 교수님

“캡스톤에서 하고 싶은 것은 내 몸을 악기처럼 잘 다룰 수 있는 훈습(熏習)을 통해, 또 경기장 밖에서 경기장 안을 볼 수 있는 전략적 눈을 통해 사람과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 김상범 교수님

“기업가정신은 시대정신이다. 가치와 쓸모를 창출하는 자기혁신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 이채원교수님

리오의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강의노트 중

살아있음의 증거를 나는 '웃음'으로 본다. 웃음은 생물이 생명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표출하는 몸짓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웃음을 되찾았다. 강의로, 캡스톤으로, 워크숍으로 함께 해주신 좋은 스승들, 아낌없이 또 섬세하게 지원해 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하다. 서로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준 7기, 그리고 인생을 맛을 아는 4조 '로하이'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배려가 없었으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

“한 사람은 사실 다른 많은 사람의 배려로 성장한다.”



깨달음과 돌아보기

• • •

박주한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비 오는 오후, 아산나눔재단을 첫 방문 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을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면접을 보고, 프로필 사진을 찍고, 좌우명과 AFA에 임하는 포부를 적으며 마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비영리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체계적인 교육과 비영리 분야 중간 관리자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 덕분일 것이다.

7개월 간의 여정을 지나 수료를 앞둔 지금, 그간의 생각과 감정을 떠올려 본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은 '깨달음'이다. 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인적자원, 리더십 등 각 분야에서 '대가(大家)'라고 불릴만한, 그렇게 불리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인 것 같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혜안과 철학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주를 떠올리게 해주었고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다. 자신의 지점을 돌아보게 되고 독서와 사유, 성찰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는 덤으로 얻은 것 같다.

두 번째는 '돌아보기'이다. 아카데미 과정 중에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인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을 모두 경험한 것 같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도 각자의 생각과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선(善)'이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그 이유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7개월 동안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느라 수고하신 운영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운영진의 배려와 친절 덕분에 무사히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분야 활동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아산나눔재단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티는 것도 리더

...

배은미
태화샘솟는집



지독했던 여름 더위도 결국 스러지고 2018년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더웠던 여름만큼 뜨겁게 고민할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으로 인해 좋은 기억이 힘든 기억을 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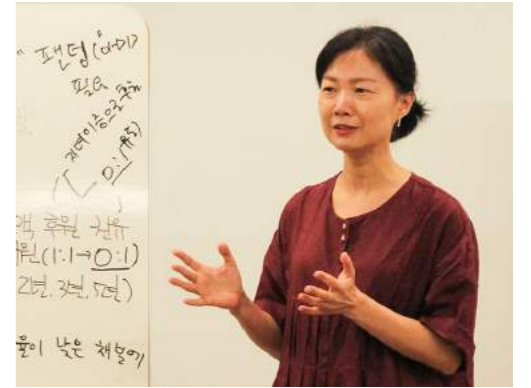
비 오는 토요일 오후, 부푼 기대감을 갖고 약속역에 내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지 몰랐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처해있는 상황이나 업무를 고려하면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또 이번이 아니면 언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관장님의 허락을 구하고 도전했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늘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새로움이 주는 신기함과 내가 갖고 있었던 틀을 깨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던 우물 속의 좁은 하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고 파란 하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열정 넘치는 동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보는 그 자체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가 더해져 일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김상범 교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버티는 것도 리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 말을 소리 내 되뇌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매니저님의 배려, 함께 하는 동료들의 서로 돕는 마음 씀씀이에 결국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는 이그나이트 자기 소개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를 잔뜩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지금은 베이스를 돌아 홈으로 돌아오는 기분이 듭니다. 긴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정에서 경험이 늘고, 동기들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통해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두려움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더 유연하게 나를 활용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점 내었다는 기쁨도 있습니다. 홈런이 아니어서 베이스를 도는 것이 아주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 베이스 한 베이스를 돌아 힘들게 얻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물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한 점을 얻었다고 해서 아직 게임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학(學)과 습(習)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스스로 '습(習)'해 볼 방법을 배웠으니 일하면서 더 연마하고 적용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어준 우리 동기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관계자분들, 진심을 담아 지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교수님들, 닳고 싶은 내 귀한 동기들, 시간을 배려해주고 기꺼이 업무를 나누어 맡아준 동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삶은 언제나 심장을 뛰게 한다

...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게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일이었다. 사실 이전부터 도전하고 싶었지만, 출장이 잦은 사무실 여건과 지방인 전주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두 번씩 오가는 일정은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나는 사회적경제조직 중간관리자로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결심을 하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 내가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다. 아카데미 개인 프로필에도 있는 말인데, 바로 '인생도처 유상수(人生到處 有上手)'이다.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숨어 있는 교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나는 아카데미 7기 교육생으로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내공 가득한 교수님들의 강의와 그분들의 인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동기 선생님들은 더 큰 자극을 주시기 충분한 분들이셨다. 그분들은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얻어지는 통찰력 가득한 대화들을 선물해 주셨고, 비영리 분야 프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분들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여러 과목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중 백미는 역시 캡스톤 아닐까? '일과 사람'에 대한 고민은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효한 질문이었다. 나는 공동의 목표와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의 답을 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라는 질문하는 좋은 계기였다.

해외방문연구조사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팀 주제와 사회혁신 사례를 살펴 보기 위해 유럽에 다녀왔다. 그곳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 같았다. 아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생활 문제에 대해 고민 해왔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이 시스템과 제도로 생활에 안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

5월 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수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왕복 80번이 넘는 KTX를 타면서 나는 몇 뼘쯤 더 성장하고 성숙 해졌을까? 지금은 이 질문이 단순한 자문이겠지만, 나는 희망한다. 그 질문이 궁극적으로 나와 조직, 그리고 세상에 혁신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배움을 실천하는 길일 것임을 다시 새겨본다.

2018년, 단언컨대 내가 거둔 가장 큰 보람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난 것이고, 그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Thank you, Asan Frontier Academy!



근본적인 목표와 자기 역할을 찾는 시간

...

손 홍 범

중앙자활센터 한국자활연수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그 7개월이라는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비영리재단에서 최고의 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경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처음 그 긴 교육시간과 과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입학식 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합격한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는 동기생을 보고 시작의 두려움 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커지던 것도 기억납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의 교육의 진정성을 보았고, 전략 모듈, 인적자원 모듈, 리더십 모듈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인교육 중 가장 교육의 정의에 충실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캠프톤 수업은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려운지 알게 해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지식전달 수업이 아니라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가는 접근방법과 협업의 중요성을 깨우쳐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후 늦은 시간에 서울에서 충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 기획자로서,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활동가로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었다면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핑계로 근본적인 목표와 자기 역할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비영리분야에서 열정을 다해 일하는 동기들과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는 아산나눔재단 운영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스승이자 소중한 깨달음을 준 롤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역할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빈곤의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도전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하시는 순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분명히 성장하실 것이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육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신민정

서울용산지역자활센터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

어느덧 7개월 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는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자활 분야에서 15년 차인 나는 처음에는 아주 잘 짜여진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마음으로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값진 기회를 얻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열정 어린 명강의를 통한 배움과 더불어 차세대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28명의 동기들로부터의 배움이 무엇보다 소중한 값지다고 말할 수 있다.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는 교육, 함께 고민하고 답을 구하는 교육,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생명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리더십, 그리고 캡스톤

조직 경영에 필요한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 수업 등을 통해 관련 지식과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캡스톤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캡스톤은 ‘리더란 무엇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조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만약 누군가 다시 한번 캡스톤을 해보겠냐고 묻는다면 ‘YES!’라고 답할 것이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의미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시작

지금도 ‘일과 사람’에 대한 고민은 진행 중이다. 전략적 리더십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몸매 배는 훈련과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나의 몫이자 숙제이다.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고, 가치와 성과를 창출하고, 후배들을,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한 나의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 교육과정 동안 우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알뜰히 챙겨주고 준비해주신 백민경 매니저님과 인턴 선생님, 온화한 미소와 조언으로 이끌어 주신 박지훈 팀장님께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7개월 간의 교육 기간 동안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배려해 준 용산지역자활센터 식구들과 비영리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7기 동기들, 우연과 필연으로 한 조가 되어 배움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간 소중한 조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영양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 •

유 영 주
소원(So One)



한국 국민으로 살아온 10여 년의 세월동안 저는 항상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서를 제출하라는 대표님의 지시를 받고 서류 준비를 하면서부터 걱정도 많아지고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듯 얘기하는 저를 배려하여 회사에서는 대학원보다 더 좋은 공부라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산나눔재단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일정이 중첩되면서 불안감은 커져 갔고, 개강식 때 모두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피곤했지만 새로운 즐거움과 깨우침, 그리고 성찰의 기회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수업을 즐겨워하는 저 자신의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전 과정은 올해 저에게 영양제와 같은 시간이었고, 특별히 필드트립과 해외연수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운상가, MARU180과 공공그라운드 방문, 워크숍과 미국에서의 10일 간의 해외방문 연구조사는 올해의 휴가를 대신할 만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따뜻한 동기들과 좋은 의견을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함께가조’ 선생님들, 성찰메모를 모두 읽어주시고 일일이 피드백을 적어주신 박미경 선배님, 훌륭한 성찰질문을 만들어 제시해주신 김상범 교수님, 밤낮으로 섬세하게 살펴주신 실무자분들, 아산나눔재단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 동기가 없던 저에게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이 첫 번째 동기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시간이 그리울 것이고, 첫 번째 동기 선생님들이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지금의 따뜻함이 언제까지라도 제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개월 동안 불안해하는 저를 지켜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에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나의 리더십을 돌아보게 된 시간

...

이 은 영
한국컴패션



영리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비영리 기관으로 옮긴 지 어느덧 12년 차, 올해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비영리의 본질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5월부터 시작하게된 아카데미는 오리엔테이션부터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신경을 써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8~9년쯤 전에 MBA를 하였기 때문에 경영 모듈 수업들이 특별히 새롭지는 않았지만,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는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하고, 교수님들 또한 비영리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라 더욱 많은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이미 이 과정을 마친 분들도, 그리고 재단에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캡스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된 조 구성을 통해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MBA 할 때도 그러했고, 회사에서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되돌아보니 나는 중반부부터 캡스톤에 대하여 흥미와 열정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다. 소통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나의 리더십 부족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아무도 리더 직위를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라는 생각도 했다. 모두가 스스로 동기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과제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주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나의 자세가 어찌면 조원들을 조금 헛갈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료를 앞둔 시점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며 구성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직무에 집중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들고, 이것이 나의 리더십이 성숙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과업 부분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크다.

가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나는 이 일에 혹은 이 역할에 얼마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통제해 왔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냥 한번 '몰방'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에 들 때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도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상관이든 내 최선의 열정을 했다면 조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생각해보니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실패 경험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번의 아쉬운 경험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동안 컴패션에서 나와 함께 해 준 많은 직원의 열정과 열심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들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내가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비록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많은 아쉬움을 안고 가지만, 기관에 돌아가서 내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들의 역동을 보면서 어떤 조직이 잘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찰하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의미 있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보니 사람들 간의 관계와 역동이 일의 성공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리더는 조직원들보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그라운드 룰을 협의하여 정하고 가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표출되는 아니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깨닫게 된다.



내 안의 나와 만나게 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이 정 미
한국여성의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게 된 것이 대학원 접수를 하고난 뒤였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 후에 꼭 도전해보아야 하다가 졸업 후면 반백 년인 나이가 될 것 같아 마지막 학기 중에 신청했다. 정말 1차, 2차, 3차 면접까지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떨림을 가진 것은 대학 입학 이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런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한 수업은 쉽지 않았다. 전략 모듈 수업을 듣기 전부터 생소한 과제가 있었고 캡스톤 수업 후 주어진 과제로 인해서 주말에는 ‘꿈작마라’ 모드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전략, 리더십,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사회혁신의 과목이 순차적으로 지나갔고 가장 배움과 성장이 많은 캡스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략, 리더십, 인적자원, 마케팅 수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만 근무했던 나에게는 생소했지만, 관심이 갔던 분야이고 미래에는 꼭 필요한 분야라서 어렵지만, 비영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영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서로 융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캡스톤 수업을 통해 리더로서, 관찰자로서, 팀원으로서 운동장 안에 있으면서 운동장 밖에서 보려고 노력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순간에는 골을 향해 오로지 달리는 선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고 어떤 때는 혼자 운동장 밖에서 관망하고 평가만 하는 내 안의 나와 만나게 해주었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캡스톤 모듈 과제로 주어지는 리플렉션 메모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나를 만나고 성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찰은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일상에서 나를 성찰하는 습관이 되었으며 큰 틀에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있어온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다양한 비영리기관에서 온 동기들과의 만남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 여러 사회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수료하고 나면 각자의 일터에서 또 치열하게 살겠지만, 주 2회 수업하던 시간에는 동기들이 생각날 것이고 지하철을 타면 나도 모르게 몸이 약속역을 향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7개월이란 시간이 우리 몸에 배었을 것이고, 교수님들에게 배운 지식이 어느덧 우리 몸에 녹아들어 혁신적 사고와 경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해본다.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던 아산나눔재단과 각 모듈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이 된 동기들과 우리 씬핑 스튜핏 조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며

...

이 정 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에게 2018년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 한 1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오랜만에 써보는 지원서, 떨렸던 면접의 순간,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길었던 교육과정, 약속역에서 아산나눔재단 까지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종종 걸음으로 달렸던 순간, 다양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멋진 동기들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참 다채로웠다.

감사했고, 행복했고, 때론 미안했고, 불편했고, 한계에 부딪히며 겨우 견디기도 했던 이 시간이 이젠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난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지원할 무렵 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와 같았다. 같은 업무였지만,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팀장으로서 일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일이라 느껴졌다. 단련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 어색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늘 바빴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가 있었다.

나는 나만의 답을 찾고 싶었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 걸까?' 궁금했다. 비영리 분야의 리더를 키워내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내가 발견한 첫 인사이트는 '밖을 보라'는 것이었다. 재단 법인부문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했기에 누구보다 조직을 넓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나는 재단 안에서만 성장한 사람이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NGO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사회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 구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우리 조직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찾고 싶었던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캡스톤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였음을 느껴가고 있다. 그때마다 필요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것도, 개인과 단체의 역동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일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도, 지혜를 갖추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도, 나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신체까지 도구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결국 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었다. 리더십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채우는 부단한 과정이라는 답을 찾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라며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주 2회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기에 절반은 진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 내년에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學)을 스스로 익(習)히며,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고 싶다.

Thanks to

끝으로 좋은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 김상범 교수님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님들, 매력 부자인 7기 동기들, 캡스톤 프로젝트 때문에 마음 고생하셨을 박지훈 팀장님, 항상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알뜰히 챙겨주던 백민경 매니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의 불편함을 오히려 격려로 채워주신 인재경영실 차용기 실장님, 든든한 우리 인재개발팀 팀원 진, 추, 성관, 진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행복한 아이로 잘 자라주는 우리 딸 민서, 자상한 민서 아빠,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잘 할게요!



나를 춤추게 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 •

이 지 은
동방아동재활원



나를 춤추게 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나에게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칭찬이었고 위안과 힐링이 되는 시간, 그 자체였다.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치를 탈탈 털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공고를 보고 덩석 시작한 지원서 작성. 3차례에 걸친 서류전형과 면접을 보고 합격한 순간! 발령으로 새로운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과 걱정도 잊게 할만큼 설레고 즐거웠다. 오히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있어 마음이 쉬어갈 수 있었고, 내가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가 사는 세상이 넓게 느껴져 속이 병 뚫리는 느낌이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타오르던 의지를 끝까지 활활 태우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참 잘 걸어왔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올해 최고의 선택이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를 처음 만나는 OT워크숍에서 나를 소개하는 이그나이트를 준비하며, 노자의 물이 가지는 7가지 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모습을 닮아 가는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용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로 가는 ‘대의’. 어느 것 하나 이루기 쉬운 덕목이 없었지만, 동기들의 모습에서 다양한 덕을

갖춘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오히려 동기들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나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이던 그때 흔들려도 괜찮다며 넉넉하고 푸근하게 받아주고 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동기들 덕분에 무엇을 하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 좀 더 단단한 땅을 만들고 나를 서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갖추게 된 계기였다.

‘인(人) 빌리지’가 가능한 AFA 7기

재단에 오면 봄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는 백민경 매니저가 있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쳐도 뒤를 지켜줄 것 같은 박지훈 팀장님이 계셔서 든든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배려로 사람의 귀함과 소중함을 경험하게 해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7기 동기들 모두 우리 조의 이름 ‘로하이(Low-high)’처럼 저마다의 낮음과 높음을 반복하며 파도타기 하듯 달려왔을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큰 울림을 주신 교수님들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함을 준 우리 AFA 7기, “Follow Me!”를 외치며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사고의 방향까지 움직여 줬던 리더 리오, 문화와 예술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전략가 감성리더 기네스,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추진력 뛰어난 리더 추추, 영혼까지 위안받을 수 있도록 품어주는 리더 솔, 확신 없는 내기는 하지 않는 방향키 같은 리더 아저! 늦고 더딘 나의 호흡에 함께 발맞춰준 이들이 없었다면 너무나 아쉬웠을 귀한 선물. 로하이 멤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AFA 8기에게 미리 전하는 인사 한마디

월요일보다 힘든 ‘일요일 자정 12시’를 경험하게 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m sorry"

• • •

임 상 업
세상을품은아이들



중년도 살아있습니다.

세상을품은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기반한 인간관계와 활동들이 나의 역할로 연결되는 것들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어느 순간 내가 사라졌습니다. '임상업'이라는 존재 자체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을품은아이들 경영지원실장'이란 역할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에서의 지난 7개월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처럼 나를 미화하거나 꾸며낼 필요 없이 내 생각과 행동은 내면의 어느 구석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심지어 불편할 정도로 나의 생존 여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중년의 80%는 실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의 근원이 온전히 자신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그 수많은 질문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둠과 각기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사람들과의 연습과 테스트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구와 변화를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밴 습성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믿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나약하고 시시한 존재의 나란 인간.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뛰어난이 아닌 과거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데, 지금의 나는 과연 7개월 전보다 티끌만큼이라도 고귀해지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나의 역할,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업무와 생활의 구분이 갈로 무 자르듯 분리되기 힘든 특성을 가진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 강화'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마케팅과 모금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하자니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숙제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중년도 두근두근합니다.

아무리 좋은 체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구현하고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은 결국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을 위한 I'm sorry 캠페인' 역시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탬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가슴 떨림과 먹먹함, 눈물의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 몸과 마음은 물론 새로운 인격마저 쏟아 붓고 있는 'Something Stupid', 5명의 대장님들 모두가 나의 친구이자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꼭, 자연사합시다~ :))

덤으로 퍼온 시

너무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엉망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가 안 생깁니다. 다들 신경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벌 떨릴 정도로 혼이 납니다. 장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울에 모르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 멋진 녀석인 것 같습니다.
목부터 왼팔까지 저려웁니다.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불편과 고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나, 잘 지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 •

장은경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줄곧 행정업무, 회계업무 즉 총무와 관련한 일들만 수행해왔다. 복지관의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 그리고 기관 안에서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늘 하던 대로 하자’라는 마음과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 같다.

그런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20여년 만에 이직하면서부터이다. 물론 이곳에서도 총무과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전 기관에서와 달리 사업에 대한 관여도 해야 했고, 재가 복지사업을 비롯해 상담업무, 후원자 관련 업무 등 내가 슈퍼 비전을 주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중간관리자라는 것을 느꼈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으나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과 노하우가 없어 슈퍼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굳이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행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일부 책임져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내 자신을 더욱 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성장시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학원까지 휴학하며 간절한 맘으로 지원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시작된 7개월 간의 대장정.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매주 화, 목 오후에 수업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하는 회의를 나 때문에 조정하는 날도 많았고, 지도 점검이나 사회복지관 평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가야 했던 날에는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아 수업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원들이 바쁜 상사에 대해 안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본인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간관리자로 인식해 주었고,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본인들의 업무에 더 집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려해주는 기관과 팀원들을 보면서 나는 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고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다.

이런 선순환의 작용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비록 지난 9월부터 법인으로 이직해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졌지만, 기관과 팀원들이 배려해 준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법인에서 그 역량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를 빌려 나의 빈 자리를 잘 채워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팀원들... 그리고 마음 편히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모든 과정의 끝에 사람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비영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옥같은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들을 비롯해, 리더십, 혁신기관 방문 등에서 만나 뵈었던 스타트업 대표님들,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션 담당 선생님들, 해외연수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통역 선생님들, 7개월의 긴 여정을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우리 동기들, 마지막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산나눔재단 운영팀 선생님들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꾸준히 이어져서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중간관리자들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REBORN. 다시 태어나고, 다시 활성화되다

...

장 진 숙
한국메세나협회



되살아난 혁신의 DNA (Revival)

올해 2월에 수술을 받고 전신마취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살아났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2개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두려웠고 불편했다. 기적같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 5일 전에 목소리가 회복되었다. 운 좋게 합류하게 된 아카데미 7기, 지난 7개월은 되살아난 육체에 혁신의 DNA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환점을 뛰어넘는 전환기 (Turning Period)

전환점(turning point)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전환기(turning period)는 학습/실험/성찰을 바탕으로 삶을 바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AFA는 전환점을 뛰어넘는 전환기를 제공해 주었다.

몰입의 순간! 지금 & 여기! (Here & Now)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나에게 AFA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너무 흥미진진해서 매 순간 ‘지금 & 여기’라는 몰입이 가능했다. 탁월한 교수님들과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모듈 덕분에 강렬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 사람, 아~ 사람! (People)

책/사람/여행/문화예술/일/배움/건강/자유.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8대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 8가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는데, 으뜸은 ‘사람’이라고 AFA에서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깨달았다.

결론은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시대의 결핍을 풍요로 만드는 정신.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가치와 쓸모를 창출하는 자기혁신. AFA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내 손에 ‘기업가정신’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물 지도와 나침반이 쥐어져 있어 부듯하다.

Special thanks to

행복했던 지난 7개월 함께 해 주신 AFA의 교수님들, 동기들,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뉘처럼 빠져드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팀 ‘로하이’ 멤버들, 소중한 추억 함께 만들어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는 남편과 양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감에 근거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

...

장혁우

사회적협동조합 무하



”이거 어때? 괜찮지? 잘 될 거 같지 않아? 재미있지 않겠어?”

2012년에 창단한 ‘무하’. ‘무조건 하자’라는 말이 열정과 추진력을 지칭하는 말에서 불과 5년 만에 부족한 준비성과 지식의 핑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무식하고 용감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시도에 짜증이 늘고 지쳐가던 시기에 내 눈에 들어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차세대 비영리 리더’라는 문구에서 길을 잃어가던 나에게 자그마한 목표가 생겼다.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다

1차 서류 합격문자를 받자마자 마지막 학기였던 대학원에 휴학원서를 냈다. 2차 서류는 에세이를 5개나 쓰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했다. 게다가 3차 최종 면접은 2배수가 선정되었는데, TV에서나 보던 입사면접 같았다. 입학식에 정장을 갖춰입고 가는게 너무 과하진 않을까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해졌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식은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다. 이곳에 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겸손함을 배우다

2박 3일의 워크숍으로 시작해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방문연구조사, 최종 발표를 위한 과정까지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다른 학문을 배우면서, 동기들과 회의하면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운영진들과의 대화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감 하나만 가득차 있던 지난날과 달리 배움을 통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리더십

함께 할 청소년과 함께 해온 동료들이 펼치고 싶어 하는 가치. 충분히 보호하고 충분히 뛰놀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 항상 둘러보며, 넓히고 보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리더십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내 실력 발휘가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빛나게 할 것인가로 인생의 성공기준이 변했다.

나를 너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입학식, 훌륭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가진 워크숍과 알찬 프로그램,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어마어마한 교수진, 대단한 동기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박지훈 팀장님과 알뜰 살뜰히 보살펴주신 백민경 매니저님.

비영리 분야가 이렇게 넓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것도 처음이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를 안겨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고맙습니다.



2018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다이어리

• • •

정지혜
월드비전



2018년 2월 19일

요즘 들어 중간관리자로서 새로운 일을 접하는 횟수가 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야 할 때도 있고, 다른 부서 업무에 의견을 줘야 할 일도 많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와 역할 속에서 바른 관점을 갖춘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경험한 팀원이 이번 기수에 지원해 보라고 권유했다.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그냥 해봐. 그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단순명료한 대답이 돌아왔다.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길 바라며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2018년 4월 19일

기나긴 선발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합격했다! (앞으로 바빠질 테니 교육이 시작되는 5월 전에 빨리 놀아야겠다.)

2018년 5월 4일

입학식과 워크숍에 다녀왔다. 어색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재미있었고 프로그램마다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느껴져 고마웠다. 앞으로 마주할 시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오후, 서둘러 업무를 마치고 회사를 떠난다. 마무리 못 한 업무에 대한 염려와 오늘 수업에 대한 기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저녁 메뉴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안고 약속로 향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동기들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다. 사회 변화를 향한 선한 뜻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있다니... 폭넓은 생각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알게 되고, 교류하는 과정이 참 즐겁다.

2018년 8월 30일

캡스톤 주제가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는 듯 하다. 이상은 높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하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돌파하기 위해 애쓰는 조원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 서로 다른 리더십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업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2018년 9월 13일

캡스톤 프로젝트와 해외 연수 준비, 어려운 도전 과제인 학술대회 발표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일에 밤샘이 계속되었다.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로와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려나?

2018년 10월 13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해외 연수를 무사히 다녀왔다. 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역동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이 많았다. 무엇보다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고, 앞으로 내가 꾸릴 팀은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감사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 동안 즐거운 시간도 있고, 때론 힘들기도 했으나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2018년 11월 15일

마지막 수업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매 수업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고, 동기들과 더 가까이 지낼걸 하는 후회가 든다. 마지막 캡스톤 수업 때 감상한 영화는 최근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다. 아카데미에서 보낸 시간과 배움은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올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졸업 후 첫 번째 두목회 모임(동기모임)이다. 못 본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들 보고 싶다. 특히 오늘은 우리 조의 'I'm Sorry' 캠페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라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며, 더 커지고 단단해져 갈 것이다. 앞으로 함께 바꾸어나갈 세상을 기대해본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얻다

• • •

조상현
위캔센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워크숍을 기다리던 설렘이 가슴속에 아직 남아 있는데 얼마 후면 아카데미 수료식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 더 배우고 싶은 것들도 남아 있고 너무나 소중한 29명의 동기와 아산나눔재단 2명의 스텝과의 추억들을 이어 가고 싶은데 지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할 약속된 시간이 채워졌으니 이 소중한 시간을 모아 따뜻함은 내 가슴 속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내 기억 속으로 정리되고 새겨야 할 시간이다. 지난 7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이 수기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만남은 나에게 늘 그렇듯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었다.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도 항상 어색했으며 내 앞에 있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궁금했고 또 걱정되었다. 그렇기에 사람들 앞에 선 나는 소극적이었고 말을 아꼈으며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 돌아보면 아카데미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음을 나눈 동기는 단 한 명이었던 것 같다.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 데 소질이 없는 내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이 첫 만남에서부터 자신의 관계망을 넓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었다.

그렇게 수업을 통해 매주 2일, 총 40여 회가 넘는 만남을 통해 지금 내 옆에는 29명의 아카데미 동기가 있고, 그중 10명은 친분을 쌓고 아카데미가 아닌 시간이나 다른 이유로 교류하고 또 더욱 돈독한 친분을 쌓아 가고 있다. 물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도 함께 나누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진 사회관계망의 확대는 무척 큰 의미를 가진다. 실무를 주로 담당했던 지난 시절에는 외부 업무가 많다 보니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또 관계망도 늘었는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서는 조직 내부의 일이 많아지고 내부 인사를 관리하게 되면서 활동 범위는 조직 내로 제한되었었다.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은 나였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일하거나 고독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나로서는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런 나에게 아카데미에서 보낸 시간과 과정은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며 인간적 관계를 넓히는데 좋은 기회였고 필요한 시간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용기다. 아카데미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내게는 용기가 생겼다. “내가 다시 한번 변화할 때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그 생각에 수업을 통해 더해진 것들을 내가 있는 조직에 적용하고 또 조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라는 용기 말이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무엇인지 모를 자신감이 나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는 밀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온갖 가능성을 들며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었고 현실성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것이 최선이라며 포기했었고 나는 이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정말 새롭게 보이며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지금 그것을 의지로 실천하고 있다. 내가 정말 달라졌음을 느낀다. 지난 7개월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지식(확신)과 용기를 얻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조직과 동료들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일을 즐기며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싶다. 이런 내 모습이 지금 매우 흡족하고 새로운 에너지에 얼굴이 즐겁다. 이 용기와 즐거움을 함께 선사해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고맙고 또 감사하며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이야기에 격하게 공감하며, 나는 아산나눔재단 속에 남고 싶고 또 남아서 나의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



참으로 보람차고 행복한 한해였다

...

조은정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CUM



시작점을 찾지 못했다. '아산'이라는 말을 썼다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가라앉아 수기를 쓸 수 있었다. 7개월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 너무나 아쉽고 섭섭하다.

오랫동안 학교, 대안학교에서 일하다가 2016년 대구청소년창의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강한 미션에 이끌려 시작한 일이었지만, 팀원도 없이 건축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저 쏟아지는 일들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창의센터의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센터를 만들기만 하면 이젠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중간관리자가 되어 조직을 꾸리고 내부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더 어려웠다.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알면 그것에 대해 배우면 그만일 텐데, 도무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것저것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하지만 허하고 답답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신청했다. 너무 간절했다. 비영리조직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잘 짜여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시는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면접 때 김상범 교수님께서 물으셨다. "집이 대구인데, 성실하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배워나가겠다는 목표 이외에도 성실한 자세로 아카데미에 임해서 다른 대구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

아카데미를 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고민은 '미션'과 '리더십'이었다. 센터는 고유 미션이 있다. 그 미션을 강조할수록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미션을 포기하고라도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미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났다.

리더십 수업 내내 나는 혼나는 기분으로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 나는 미션을 따르기를 원했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는 리더가 아니었다. 팀원과 미션의 가치를 나누고 공유하면 본질을 지키면서도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다는 해답을 찾았다. 전략 수업은 센터의 설립 미션이 외부 사람에게도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미션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어떻게 브랜드화해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주었다. 캡스톤은 실전이었다. 팀원이 함께하면서 나의 리더십, 성과 그리고 타인의 리더십, 성과를 관찰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내게 준 선물은 좋은 수업만이 아니었다. 7기 동기들과의 만남도 큰 축복이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는 것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이뤄나가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배려심, 유연함, 전문성뿐만 아니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다.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OT 때 이봉주 원장님께서 아산의 디테일을 느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다. 아산나눔재단의 꼼꼼한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나의 2018년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차고 행복한 한 해였다.



진정한 배움, 성장, 성숙의 시간

...

조은주



문제해결 과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마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조직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나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기관을 겨우겨우 설득하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렸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나의 노력은 창립멤버로 내가 세웠던 기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했고, 조직이 커질수록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고난의 연속이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런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교육에 참여할수록 내가 담고 있는 조직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길러졌고, 오히려 그 힘이 나에게 성장의 기회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나를 지켜보던 지인들이 "힘든 여건 중에 교육에 나가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를 위해서 포기해라"는 말씀을 종종 주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봉착되어 있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또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과정은 진정한 배움, 성장, 성숙으로 다가왔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것 같다.

첫 캡스톤 과제부터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 '공익적인 프로젝트만 잘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살피는 일에 서툴렀다. 하지만 리플렉션 메모의 질문에 '일에 대한 질문', '사람에 대한 질문', '일+사람에 대한 질문'을 읽고 나서 '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살피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툴지만 하나씩 과제를 작성하면서 '일', '사람', '조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다.

배움이 있기 전에 나는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금씩 나의 문제를 성찰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들이 더 보다 명확하게 보였으며, 그 문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보였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용의 범위도 넓혀주는 기회가 되었다. 적어도 내가 몸담은 분야에서 나를 자부했던 나의 고집스러운 업무 스타일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분명히 변했다. 보다 깊이 사유할 수 있는 힘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 주신 박지훈 팀장님과 백민경 매니저님 정말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동기 분들 사랑합니다. 특히,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었던 우리 4조 로하이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의 20년, 치열했던 지난 시간들에 위로가 되어준 종합선물세트

...

최효정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내가 오래된 기관을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이직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리더로서의 역량 부족과 다양한 경험, 세상과의 접촉이 부재한 나의 일상 때문이었다. 한 기관에 있으면서 다른 경험들, 도전을 하지 못한 채 중간관리자로 혹은 최고관리자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가게 되면 다양한 경험과 나의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새 기관에서의 적응과 새롭게 접한 일들에 대한 성과 등에 몰입하다 보니 왜 이직을 하게 되었는지도 잊은 채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뜨끔하였다.

여전히 리더로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이고 싶었는데 이를 해소해줄지 못하는 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어떤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다가 주변 지인들의 조언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기관과 직원들의 배려로 교육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짜여 있어 지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강의를 전하는 교수님들을 통해 그분들의 인생을 통틀어 깨달은 것들과 지금도 부딪치며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교수님들이 이런 깨달음과 정의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으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내지 않고도 이렇게 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

그래서 내 고마움의 표현은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석하지 않으며 매 순간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의에 대한 나만의 메모를 하게 된 것도 그 성의를 다하는 것에 대한 나의 작은 표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 높지만, '7기'라는 좋은 동기를 만나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 나이와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곤 한다. 나에게 기대한 역할에 얼마만큼의 만족을 주느냐에 따라 나와 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나는 계속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노력한 관계라도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지곤 했다.

지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나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관계가 아닌 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데 좋은 친구로 함께하고픈 생각이 든다.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극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며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올해로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20년이 되었다. 20년 동안 출산휴가 2개월을 제외하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현장에서 일해왔다. 직장생활 20년이 된 직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종합선물세트였다. 행복하고 감사했다.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만큼, 내 인생에서 어떤 변화론든 열매 맺으리라는 확신이 든다. 내 인생에 닥쳐올 문제들은 새롭고 즐겁게

이겨나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아산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끝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생으로 선발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일이 아닌 진심으로 이 시간을 함께해준 백민경 매니저님과 박지훈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하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

한수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한: 한 번에 아산프론티어 아카데미에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 수많은 사람 중에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 지금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학식 때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입학 소감을 이야기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교육과정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2015년에 아이를 낳고, 2016년에 복직을 하고, 2017년에 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내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

“하고 싶으면 도전해봐! 사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라는 남편의 말에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여유로운 날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고, 의지를 불태우며 입학할 하게 되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대학원보다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조언을 듣고 ‘이거 왜 이르서~ 나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대학원 나온 여자야~’라 안일한 생각을 했다. 약 2~3개월 쯤 지났을까...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며 한약에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저질 체력이 된 나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리더십 수업시간에는 스스로 마음의 찢림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책과 멀리 지내던 나를 발견하였다. 캠프톤은 ‘집에서의 나, 회사에서의 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나’를 생각해보게 하고 만나게 해주었다. 동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내 모습들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끝난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 시원섭섭한 마음, 기대되는 마음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차오른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신 유영덕 관장님,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을 함께 채워준 황성운 부장님과 세현, 규원, 미선, 은지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1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챙겨준 백민경 매니저님과 박지훈 팀장님, 간혀있고 잠들어 있던 생각을 깨워준 여러 교수님, 미국과 멕시코를 함께 다녀온 우리 1조, 언제나 든든한 우리 7기 언니, 오빠들... 그리고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응원해 준 우리 남편과 딸 담희~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꼭!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더 부지런하고, 더 참신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해본다. “이봐~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이 말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리더로서의 자세를 키우는 시간

...

홍도은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



캡스톤 수업을 하며, 예전에 어린 나를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시던 상사분이 생각났다. 신입사원이었던 그 시절, 그 분의 이야기들은 나에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냥 잔소리 같은, 그런 말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선임이 되고 팀장이 되면서 그 옛날 그 분이 하신 말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권력의 문 앞에 서면 사람은 민낯을 보이게 된다.
- 위로 올라 갈수록 욕 먹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월급을 더 주는 것이다.
- 상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모실지 안 모실지는 스스로 선택해라.
- 여론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 조직의 평화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와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리더는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 캡스톤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 그 분을 통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시기에 적합한 리더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리더로서 나의 강점을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면 목소리를 낮추고, 리더의 역할을 거절하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리더는 자기 자신을 약기처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이 답이었다. 조직이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에 부합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리더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리더로서의 지식보다는 '자세'를 키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의 나를 알고 싶다면 꼭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생각을 가진 동기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며 위로받고 위로를 나누는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더 넓은 세상과 더 높은 뜻을 실천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며 진실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치여 나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단,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장착하고 오길 바란다.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잊지 못할 순간들







THE ASAN NANUM FOUNDATION

ASAN FRONTIER ACADEMY





2018. 05. 02
~ 2018. 12. 01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